광주체고 태권도 간판 김가현 '금빛 발차기'

국방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
압도적 기량으로 여고부 우승
대회 최우수선수상도 수상
나정후도 남고부서 금메달

광주체고 태권도 간판 김가현(2년)이 전국대회 페더급 정상에 올랐다.

22일 광주체육고등학교에 따르면 김가현은 최근 경북 문경 국군체육부대 선승관에서 열린 '제31회 국방부장관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여자 고등부 페더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가현은 이 대회에서 최우수(MVP) 선수상을 받았다.

김가현은 예선부터 결승전까지 3회전 경기를 운영하지 않고 1·2회전 점수 차승으로 모든 경기를 치르는 등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였다.

결승전에서도 김혜름(영광고)을 가볍게 일축했다.

1회전에서 얼굴 들어차기 선취점을 따내면서 17-3승, 2회전에서도 상단 돌려차기와 들어차기 얼굴 득점으로 점수 차를 벌이며 13-1로 우월한 경기를 펼쳤다.

나정후(1년)도 남자 고등부 라이트급 금메달을 수확했다.

나정후는 결승전에서 여신율(풍생고)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따냈다.

1회전 커트발차기와 앞발 몸통 득점으로 8-1승, 2회전은 상대 반칙을 유도하여 5-2 점수 차승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광주체육고 육철수 교장은 "태권도 선수들이 코로나19로 운동시간이 부족했음에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10월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회에는 4000여 명 선수, 900여 명 지도자와 관계자가 참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체고 김가현(가운데)이 '제31회 국방부장관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체고 제공〉

내년 보스턴 마라톤에 '제3의 성' 22명 출전 신청

2023년 4월 17일(현지시간)에 열리는 제127회 보스턴 마라톤에 여자, 남자가 아닌 '제3의 성'으로 22명이 출전할 전망이다.

보스턴 마라톤을 주최하는 미국 보스턴육상연맹(BAA)은 21일 "총 2만3267명이 내년 보스턴 마라톤 출전 신청서를 냈다"며 "신청자는 남자 1만3315명, 여자 9930명, 논바이너리(Non-binary·남녀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서 벗어난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 22명"이라고 밝혔다.

세계육상연맹이 인정하는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마라톤 대회 중 '논바이너리 파트'를 처음 만든 건 뉴욕 마라톤이다.

뉴욕 마라톤은 2021년 대회에서 논바이너리 파트를 신설했고, 총 16명이 '제3의 성' 선수로 뛰었다.

오는 10월 9월에 열리는 시카고 마라톤에서도 논바이너리 선수가 출전한다.

1897년에 창설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보스턴 마라톤도 '제3의 성' 선수들에게 문을 열었고, 런던 마라톤도 내년에 논바이너리 파트를 신설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유당기 전국생활체육검도대회 3년만에 광주서 개최

24~25일 서석중·고 체육관에서
전국 70여 단체 1000여명 참가

유당기 전국생활체육검도대회가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광주에서 열린다.

22일 광주시검도회에 따르면 학교법인 유당학원, 재단법인 유당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유당(裕堂) 최상옥 선생 추모 제27회 유당기 전국생활체육검도대회가 24일부터 25일까지 광주서석중·고등학교체육관에서 열린다. 전국 70여 개 단체, 1000여 명(선수, 임원, 심판 등) 선수단이 참가한다.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이 대회에는 호주에서도 참가하여 검도 세계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당기 대회는 광주에서 열리는 유일한 생활체육검도 대회다. 대회운영과 참가선수 규모에서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검도인들의 한마당이다.

이번 단체전에서는 일반1부, 일반2부 청·장년, 일반2부 중년, 여자부, 초등부, 도장 통합부 등 총 6개 부에서 우승을 다툰다.

개인전에는 일반1부, 일반2부 청·장년, 여자부 청·장년, 여자부 중년, 일반2부 중년. 총 5개 부분에서 우승자를 가린다.

제24회 유당기 전국생활체육검도대회에서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 〈광주시검도회 제공〉

이 대회는 검도발전에 기여한 최상옥 선생(남화토건(주) 창업자) 창설했다. 검도인들의 우의와 화합을 다지고 지역과 사회 통합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진흥중 임서진 '사이클링 히트'

유소년야구대회서 작성…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특별상 수여키로

광주진흥중 임서진(3년·우익수·사진)이 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서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해 특별상을 받는다.

임서진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기장군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U-15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첫 경기에서 사이클링 히트를 작성했다.

지난 20일 장안천야구장에서 열린 아홉산숲리그 HBC와의 경기에서 7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한 임서진은 2회 3루타, 3회 2루타, 5회 홈런과 안타를 기록했다.

임서진은 2회초 우중간 3루타로 타점을 올린 뒤 3회 무사 1루에서 다시 중전 2루타를 터트리면서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5회에는 진흥중이 타자일순하는 공격력을 발휘하면서 두 차례 타석에 들어섰다. 무사 1·2루 때 중앙 담장을 넘긴 임서진은 이어 우전 안타까지 기록하면서 사이클링 히트를 완성했다.

이날 임서진은 5타수 5안타(1홈런) 7타점을 기록하는 등 타선에서 맹활약하며 진흥중의 23-2, 5회 콜드게임 승을 이끌었다.

임서진은 "중학교 마지막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서 좋았고, 다음 경기도 열심히 준비하여 팀이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올해 첫 번째 사이클링 히트 주인공이 된 임서진에게 대회 종료 후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호남대 여자탁구 '전국 최강' …회장배 단체전 우승

호남대학교 여자탁구부(감독 박인혜)가 최근 강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8회 회장배 한국대학탁구 최강전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나수진(3년)·기다빈(2년)·정하린·김선우·김경민(1년·이상 스포츠레저학과)은 이 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부산영산대학교를 3-1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4강전에서는 울산대학교를 3-0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여자개인 복식 기다빈·김경민 조와 남자탁구 개인복식 정건우(2년)·김태휘(1년·이상 스포츠레저학과)조가 나란히 3위에 올랐다.

호남대학교 남녀 탁구부는 현재 광주시 탁구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호남대는 이번 대회 선전을 계기로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회장배 한국대학탁구 최강전 단체전에서 우승한 호남대 여자탁구부. 〈호남대 제공〉

이경훈·김주형 첫날 한 조로 출격

프레지던츠컵 골프 오늘 개막
임성재는 코너스와 파트너

미국과 인터내셔널 팀의 남자 골프 대항전인 프레지던츠컵 첫날 '코리안 브라더스'의 맏형과 막내가 한 조로 출전한다.

23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개막하는 프레지던츠컵 골프 대회 첫날 경기에서 이경훈(31)과 김주형(20)이 한 조를 이루게 됐다.

트레버 이멀먼(남아공) 인터내셔널 팀 단장이 짠 첫날 포볼(2인 1조로 팀을 이뤄 각자의 공으로 경기해 더 좋은 성적을 그 팀의 해당 홀 점수로 삼는 방식) 조합을 보면 애덤 스콧(호주)과 마쓰야마 히데키(일본) 조가 미국의 패트릭 캔틀레이, 잰더 쇼플리 조를 상대한다.

또 임성재(24)는 코리 코너스(캐나다)와 한 조를 이뤄 조던 스피스, 저스틴 토머스와 맞대결한다.

이경훈과 김주형 조는 캐머런 영, 콜린 모리카와와 3조에서 격돌한다.

4조는 미국에서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와 샘 번스 조합을 내놨고, 인터내셔널 팀은 김시우(27)와 캠 데이비스(호주) 조로 맞불을 놨다.

마지막 경기인 5조는 인터내셔널 팀의 테일러 펜드리스(캐나다), 미토 페레이라(칠레) 조가 미국의 토니 피나우, 맥스 호마와 경기를 치른다.

첫날 쉬는 선수는 미국에서 빌리 호셜과 케빈 키스너, 인터내셔널 팀에서는 세바스티안 무뇨스(콜롬비아)와 크리스티안 베자위덴하우트(남아공)다.

1조인 스콧-마쓰야마 조와 캔틀레이-쇼플리 조의 경기가 한국시간으로 23일 오전 2시 5분에 시작하고, 이후 12분 간격을 두고 다음 조 경기가 이어진다.

이틀째 경기에는 같은 팀 2명이 공 하나를 번갈아 치는 포섬 방식으로 5개 경기가 열린다.

사흘째는 포볼과 포섬 경기가 4개씩 오전, 오후로 진행되고 대회 마지막 날에는 12명의 선수가 차례로 일대일로 매치플레이를 벌인다.

프레지던츠컵 역대 전적은 미국이 최근 8연승을 거두며 11승 1무 1패로 압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공조2: 인터내셔날
2관	공조2: 인터내셔날
3관	공조2: 인터내셔날, 극장판 엄마 까투리: 도시로 간 까투리 가족
4관	늑대사냥
5관	애프터: 에버 해피
6관	공조2: 인터내셔날, 블랙폰
9관	늑대사냥, 썬더버드
7관 씨네커플	프린세스 아야, 헌트, 블랙폰, 한산: 용의 출현, 아이의 노랫소리를 들려줘
8관 씨네커플	육사오(6/45)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_11시 음악산책
욕망과 고독의 자화상, 뉴욕
일시 : 2022. 9. 26.(월) 11:00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235

광주시립합창단 제190회 정기연주회
가을저편
일시 : 2022. 10. 12.(수) 19:30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613-8245